

# 에어부산-서울, 아시아나 품 떠나나... 분리매각 급부상

## 아시아나, 노딜후 플랜B는

채권단, 장관회의서 '플랜 B' 보고  
최종 무산시 경영정상화 후 재매각  
보류중인 기간기금 지원여부 관심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절차가 끝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와 함께 팔릴 예정이었던 자회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지원방안을 결정한다. 이 회의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아시아나채권단의 M&A(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플랜 B' 보고가 이뤄진다.

채권단은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딜이 최종 무산되면 아시아나를 관리 체제 하에 두고, 경영 정상화 후 재매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구조조정 등을 통한 조직 슬림화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열리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심의회에서도 아시아나 지원 문제가 안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건으로 다루질 예정이다. 그동안 아시아나는 현산과 M&A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간기금에 대한 지원이 보류됐지만, 결국 딜이 무산되면서 기간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의 첫 수혜 기업이 되게 됐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가 최대 2조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인수 주체인 현산은 최종 딜 무산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 쪽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금호는)

현재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도 아시아나 M&A 관련 질문에 "합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 M&A가 최종 무산될 경우,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희비도 교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시아나의 계열사인 LCC(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당초 지난해 매각 결정 당시 아시아나와 함께 통매각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딜' 상황에 더불어, 올해 들어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항공업계가 사상 최악의 업황을 맞으며 분리매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새 인수자가 나올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인수에 따른 부담은 재매각의 성사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공시시스템 다투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아시아나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지분을 각각 44.17%, 100% 보유하고 있다. 지분을 완전 소유하고 있는 에어서울과 달리, 에어부산은 비교적 지분이 낮은 만큼 분리 매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평이다.

다만,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업황에 LCC 양사는 코로나19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경영난까지 겪고 있어, 모두 분리 매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에어부산은 올 상반기 영업손실 899억원, 에어서울은 반기순손익 -375억원을 기록했다.

세종대 황용식 교수는 "채권단이 금호산업 경영진에 그간의 책임을 물어 감자를 요구할 것이다. 또, 통매각을 고수했었으나 매물을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분리 매각을 할 것"이라며 "에어서울도 부채 등 문제가 있어, 매각을 시도하다 안 되면 아시아나와 통합 등 흡수합병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에어부산은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신규 투자자를 발굴해 지역 항공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분을 매각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말해 '조인트벤처 바이아웃(경영권 인수)'이라고 해서, 보유 지분을 나머지 지분 보유자에게 파는 경우가 많다. 조인트벤처가 종결되면 한 기업이 통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뜻한다"며 "채권단 관리 체제에 있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산은이 개입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제외하고, 아시아나개발과 아시아나세이비,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아시아나세이비, 아시아나아이디티 역시 각각 80%, 76.22%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LG화학, 리튬-황 배터리로 성층권 '훨훨'

태양광 무인기에 차세대 배터리 탑재  
고도 22km 극한 환경서 안정적 비행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를 활용한 무인기 최고 고도 비행 테스트에 성공했다.

LG화학은 1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고고도 장기 체공 태양광 무인기(EAV-3)에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해 성층권 환경에서 비행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EAV-3는 고도 12km 이상 성층권에서 태양 에너지와 배터리로 오랜 시간 날 수 있는 소형 비행기다. 날개 위 태양전지판으로 충전하며, 낮에는 태양전지와 배터리 전력으로 비행하고 밤에는 낮에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으로 비행한다. EAV-3의 날개 길이는 20m, 동체 길이는 9m다.



무인기에 탑재된 리튬-황 배터리.

LG화학은 지난달 3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 항공센터에서 EAV-3에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한 후, 오전 8시 36분부터 오후 9시 47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비행 테스트를 진행했다. 국내에서 리튬-황 배터리로 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LG화학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비행 테스트에서 EAV-3

는 국내 무인 비행기로는 전례가 없는 고도 22km를 비행해, 무인기 기준 국내 성층권 최고 고도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총 13시간의 비행 중 7시간을 일반 항공기가 운항할 수 없는 고도 12~22km의 성층권에서 안정적인 출력으로 비행했다.

이번 비행 테스트는 영하 70도의 낮은 온도와 대기압이 지상 대비 25분의 1수준인 진공에 가까운 성층권의 극한 환경에서도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황 배터리의 안정적인 충방전 성능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리튬-황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 중 하나로 양극재에 황탄소 복합체, 음극재에 리튬 메탈 등 경량 재료를 사용해 무게 당 에너지 밀도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1.5배 이상 높은 배터리다.

/김수지 기자

## SK이노베이션, 'SOVAC 어벤져스' 결성

'SOVAC 2020' 인사이트 공유

SK이노베이션이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와 함께 사회적가치 확장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자사가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11개사가 SK이노베이션과 함께 SOVAC 2020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SOVAC 2020을 널리 알리기 위한 'SOVAC 어벤져스'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SOVAC 어벤져스는 'SOVAC'이 추구하는 가치의 주인공 격인 사회적기업들이 이를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삼고, SOVAC이 갖고 있는 풍성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통해 경영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2018년 말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사회적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에서부터 시작된 SOVAC은 지난해 열린 첫 행사에서 50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SOVAC 2020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지식·솔루션을 연결하는 강연 및 토크쇼 등을 코로나19로 인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진행에도 SK그룹 관계사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ICT 기업이 총출동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법조계, 인플루언서까지 참여하는 등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이번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및 자사가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소셜벤처 11개사(전주비빔밥, 모어덴, 우시산, 그레이프랩, 소무나, 몽세누, 이노마드, 마린노베이션, 오투엠, 인진, 멩그러브)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 SOVAC 어벤져스를 만들기도 했다.

이를 통해 SOVAC 2020을 응원할 뿐만 아니라, 강연 등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사회적가치 토론의 장 확대에 적극 나선다.

/김수지 기자

## 다이슨, 7년 연구개발 '에어랩 스타일러' 출시

쫘쫘한 컬 연출, 가는 모발도 유지

다이슨이 가는 모발도 컬의 유지력을 높여주는 '에어랩 스타일러'의 신규 톨 20mm 에어랩 배럴과 '스몰 라운드 볼륨 브러시'를 전격 공개했다. 이는 지난 7년 동안 모발 과학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다이슨은 10일 영국 맘스베리의 모발 연구소와 서울 팝업 뷰티랩에서 지난 7년간 연구개발로 탄생한 '헤어 사이언스 4.0'의 디지털링칭을 진행했다. 전 세계의 '다이슨 모발 과학 연구소'에서 1억 파운드(1540억원)가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 모발 과학 연구에는 모발의

구조, 공기 역학, 열로 인한 손상, 모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적 화학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

새롭게 출시된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의 톨은 두가지이다.

우선 '20mm 에어랩 배럴'은 더 쫘쫘한 컬을 연출할 수 있게 설계됐다. 가는 모발에도 컬의 유지력을 높일 수 있다.

'스몰 라운드 볼륨 브러시'는 앞머리나 짧은 모발에도 손쉽게 볼륨감있는 헤어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다. 두 제품은 스타일러의 본체에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신제품은 다이슨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한다. '20mm 에어랩 배럴'과 '스몰



다이슨이 새롭게 출시한 '헤어 사이언스 4.0' (좌)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우)

라운드 볼륨 브러시'의 소비자 권장 가격은 각 5만3900원이다. 신제품 포함 5가지 스타일링 톨을 선택해 나만의 다이슨 에어랩 구성을 만들 수 있는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커스텀'은 59만9000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에어부산, '도착지 없는 비행' 첫 운항

대한민국 순회 여정으로 구성

에어부산이 '도착지 없는 비행'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고 나섰다.

에어부산은 10일 국내 항공사 최초로 도착지 없이 국내 상공을 비행하다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도착지 없는 비행'을 첫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위덕대학교 항공관광학과 학생 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해당 항공편(BX8910)은 오후 12시



에어부산 항공기.

35분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포항과 서울을 거쳐 광주와 제주 상공까지 운항한 후, 오후 2시 35분 김해공항으로 되돌아오는 대한민국 순회 여정으로 운항된다.

/김수지 기자